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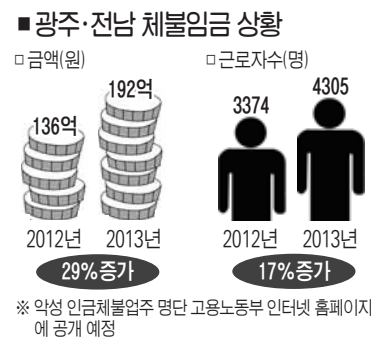
“192 어~ 억!” 체불임금 노동자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추석(19일)을 앞두고 광주·전남 노동자 4300명이 밀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비탄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 중 3200여명은 회사와의 힘든 소송을 진행중이며 추석 쉼 돈은 커녕,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하루를 버려내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5일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 자료 제공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악성 체불 사업주 명단을 처음 공개하는 등 밀린 임금 청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 노동자의 '우울한' 추석 나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체불 노동자 4305명, 192억원 못 받아 발동등=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체불임금은 1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5억9900만 원에 비해 29.2%(55억100만 원)나 늘어났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도 4305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3574명보다 17%(731명) 증가했다.

이들 중 3274명은 밀린 임금 지급을 미루는 업주를 잡지 못해 지루한 임금 청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 노동자의 '우울한' 추석 나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에서 생활 자금(3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근근이 가족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도 68명이나 됐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가 이

추석 보름 앞두고
광주·전남 4300여명
밀린 임금 못받아
보름달 같은 한숨만
68명은 생계비 대출까지

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강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간 것도 우울한 명절을 보내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9일까지 '임금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정해 체임 해결과 권리구제 지원에 나선다. 악성 체불 업주에 대해서는 명단까지 공개하며 임금 지급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당장, 5일 악성 임금체불 업주 234명의 이름·회사명·나이·주소 등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관보, 각 지방고용노동청사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악성 체불업주 명단 공개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 자료 제공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 2005년부터 영안 대불산단 내 업체를 운영하면서 61명에게 2억9000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광주·전남 사업주도 포함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상습 임금체불과 재산 은닉, 집단 임금체불 후 도주 등 고의성이 있는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조전혁 전 의원 등 정치인
전교조 명단공개 16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4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총 1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홍삼’으로 경찰 황재?

운암동 홍삼 절도범 잡고 CCTV 확인 중
화장실 성폭행·성추행 추가범행 밝혀내

지난달 26일 광주 한 술집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광주일보 9월 3일자 6면)의 범인이 지난 두 달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성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차평동 A주점 여자 화장실 앞 계단. 1시간 전부터 이곳 주변을徘徊하던 김모(36)씨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강모(여·21)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 건물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엔 범행 후 검은색 조끼를 입고 나오는 김씨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목격자도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채취한 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의뢰했지만 해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건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해결됐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0분께 북구 운암동 B인력소개소에서 30만 원 상당의 홍삼을 훔쳤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CCTV 화면분석을 통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던 중 지난 7월 4일과 지난달 19일 북구 신안동·중흥동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범인의 인상차이가 비슷한 것을 알고 추궁 끝에 김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구속했다.

경찰은 이 때 김씨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넘겼고 국과수는 서부·북부경찰로부터 건네받은 DNA를 분석 중 두 개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해당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4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특수감각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건전한 추석 상거래”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과 말바우 시장 상인들이 4일 시장 주차장 앞길에서 장을 보러온 주민들에게 추석맞이 물가 안정 홍보 전단지 나눠주고 있다.

4대강 건설사 4곳 전현직 임원 6명 영장

검찰, 입찰방해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3일 4대강 건설 입찰 담합에 가담한 대형건설사 4곳의 토목사업부 관련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형법상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로, 현대

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이다. 검찰이 4대강 사업의 입찰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담합 혐의와 관련해 건설사 고위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중에는 현대건설의 손도(61) 전 전무도 포함됐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 공사 과정에 참여하며 지분을 담합을 벌이고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해 써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으며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한기업 등 8곳에는 시정명령만 내렸고 롯데·두산·동부건설에는 경고 조치했다.

/연합뉴스

장석효 도공 사장 영장
4대강 업체서 수뢰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장석효(56)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년 6월 도공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했던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 축하연에서 맥주병 폭행

광산경찰 40대 검거

금호타이어 신입 노조위원장 당선 축하 회식 자리에서 밀다툼을 벌이다 동료들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산경찰은 4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조원 김모(49)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M식당에서 동료 노조원 김모(52)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다.

피해자 김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맥주병을 들더니 내리쳤다”면서 “노조위원장 선출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특수감각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최승렬·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15년간 9,000명이 수강한 명망의 불황기 성공전략!! 부동산 실전경매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마케팅전문)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 방송국 특강, KBC-TV 아침마당 출연강의 등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세미나토론자 참여

13년 9월~12월 선착순 70명 마감

장소	교육대 평생교육원
일시	매주(화) 주간 : 10시~19시
연락처	062)520-4243
장소	전남대 평생교육원
일시	기본반 매(수) 15시/19시 실전경매 매(목) 14시/19시
연락처	062)530-3873~5

무료 공개강의 안내
광주교육대 | 9월 3일 (화) 10시/19시
전남대학교 | 9월 4일 (수) 15시/19시
9월 5일 (목) 19시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제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계림동 ● 주서원입구 ● 고대 주차장
대한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각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제080130-공-26%호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